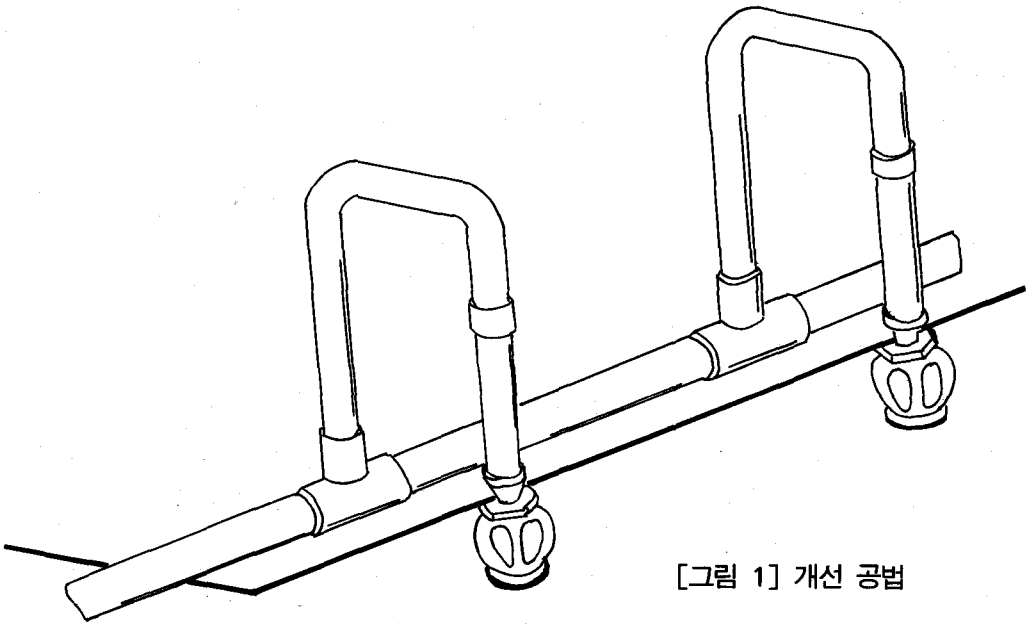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굴곡관



[그림 1] 개선 공법

(주)대경엔지니어링(대표 손병옥)은 소화설비배관중 스프링클러 가지관에 연결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시 ㄷ자형의 굴곡관으로 설치, 작업을 간소화함은 물론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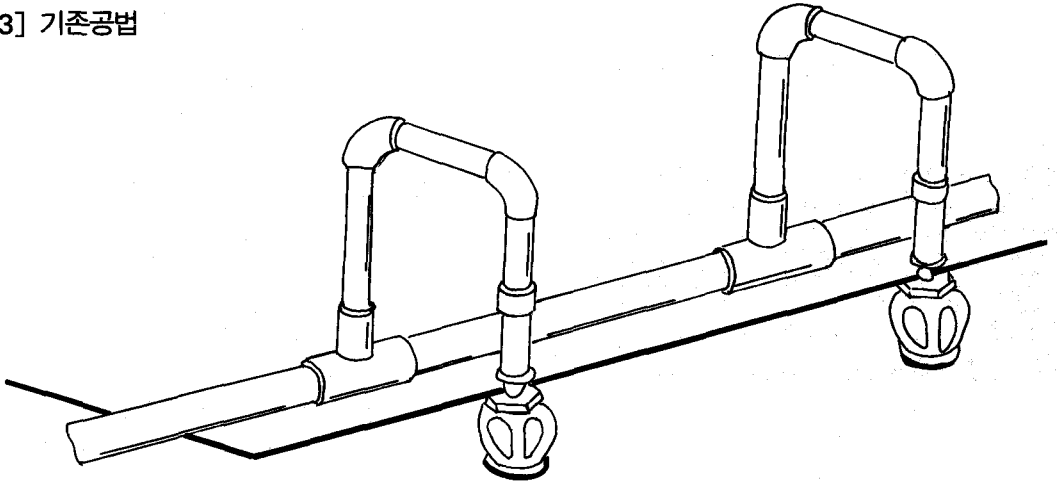
기존의 공법이 가지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시, 상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2개소에 엘보관을 사용해야 하므로(그림 3참조) 엘보의 연결작업 및 엘보관을 준비해야 하는등 작업시간이 많이 걸려 작업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도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경엔지니어링은 ㄷ자형의 굴곡관을 만들어 가지관에 상향으로 연결하고 그 끝단에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면 되는 공법을 고안, 지난해부터 각 현장에 적용,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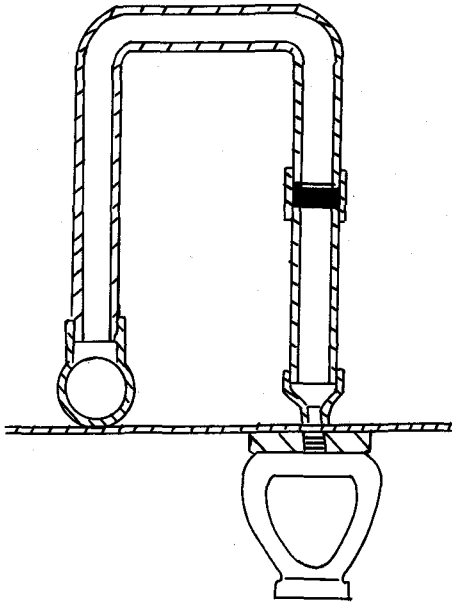
이공법을 적용한 후 엘보관이 필요없게 되어 간편한 연결작업은 물론 하자발생의 우려를 배제했다.

대경엔지니어링은 이 공법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이어 다른 부분의 공법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그림 3] 기존공법



[그림 2] 개선공법 단면도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

도루묵

처음 들으면 마치 도토리묵처럼 묵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병자호란을 맞은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 피신했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신하들이 모처럼 구해온 게 묵이라는 고기였다.

인조가 먹어보니 맛이 참 좋아 고기의 이름을 물으니 묵이라고 했다. 인조는 고기의 맛이 일품인지라 그 맞치곤 이름이 천하다며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 후 인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그 고기를 맛보았는데 맛이 매우 없었다. 그래서 그 은어를 도로 묵으로 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